

# 서울 勤勞者家計의 貯蓄行態

裴 茂 基\*

〈目 次〉

I. 序 言	IV. 貯蓄率의 決定要因
II. 標本家口의 特性	V. 政策的 示唆
III. 貯蓄의 現狀	

## I. 序 言

韓國經濟의 高度成長을 뒷받침해 온 高水準의 投資財源은 그 상당부분을 海外貯蓄에 의  
존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이룩한 資本의 蓄積, 所得의 增大 등에 힘입어 海外貯蓄에의 높은  
依存에서 벗어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당연히 國內貯蓄이 提高되어  
야 한다.

國內貯蓄의 增大도 여러 가지 方法에 의존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현실점에서 가장  
重點的으로 貯蓄이 開發되어야 할 部門이 家計部門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원래 家計部  
門이 國內貯蓄의 主體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높아진 家計  
所得이 역시 높은 消費性向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消費되고 있고 그것이 나아가 物價騰貴  
와 輸出不振을 促進하기에 이른 感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家計의 限界貯蓄性向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家計의 貯蓄行態에 대한 把握  
이 要求되며 이 調查報告는 그와 같은 目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論文에서는 특  
히 서울 勤勞者家計의 貯蓄行態만을 다루며 같은 論集에 실린 서울 非勤勞者家計의 貯蓄行  
態와 같은 時點에서 같은 方法으로 다만 對象家口만을 달리하고 調查된 것임을 밝혀 둔다.  
이 調查는 對象家口數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結果를 一般化하기는 어려우며 大型의 貯蓄行  
態에 대한 豫備調查(pilot survey)의 性格을 가진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貯蓄率이나  
기타 貯蓄關係行態에 관한 率 등에 있어서 所得階層別 趨勢를 짐작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리  
라고 생각된다.

이 調查는 1977年 7월에 施行하였는 바 調查對象期間은 1976年 7月 1일부터 1977年 6月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助教授

30일까지의 滿 1年間の 所得, 消費, 貯蓄 등에 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II. 標本家口의 特性, III. 貯蓄의 現狀, IV. 貯蓄率의 決定要因을 分析하고 그 결과로부터 V. 政策的 示唆를 誘導해 보고자 한다.

## II. 標本家口의 特性

근로자 가구의 家計貯蓄行態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선 소득수준이 다른 4個洞이 선정되었다. 종로구 가회동은 高所得地域, 관악구 상도동은 高所得 내지 中所得地域, 관악구 신림동은 中所得地域, 그리고 영등포구 시흥동은 低所得地域으로 예상되어 標本地域으로 뽑혔다. 面接調査結果 利用可能한 調査票는 전체적으로 128個(戶)였으며 標本家口에 대한 特性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家計總所得階層別 家口數

家計調査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經濟的 變數는 家計의 總所得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4個地域의 家計總所得이 高所得, 中所得, 그리고 低所得層의 地帶로 區分될 것을 예상하였는데 調査結果는 대체로 예상과 일치하였으며 그렇다고 高所得豫想地域에 低所得家口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가회동에서도 상당한 低所得家口가 標本으로 선정이 되었다. 같은 地域內에서의 標本の 抽出은 가령 30戶의 有效調査票가 최종목표일 때 그 4倍數만큼의 戶數가 包含되는 數個의 統籍簿를 복사하여 그 母數에서 標本을 任意抽出하였다. 그러므로 가령 低所得家口가 高所得地域에 包含되어 있을 때에도 그 家口의 所得水準 때문에 人爲的으로 標本에서 除外되지는 아니하였다.

4個地域의 標本家口數는 <表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회동 35家口, 상도동 32家口, 신림동 31家口, 시흥동 30家口로 總 128家口였다. 이 가운데 家計總所得이 未詳인 19家口를 除外한 109家口의 分布狀態를 보면 1976年 7月 1日부터 1977年 6月 30日까지의 年所得 3,001

<表 1> 家計總所得階層別 家口數

지역	총소득									소계	미상	계
	480千 이	481 ~ 840	841 ~ 1,200	1,201 ~ 1,800	1,801 ~ 3,000	3,001 ~ 6,000	6,001 ~ 12,000	12,001 이 상				
가회동	9	1	1	0	2	9	1	0	23	12	35	
상도동	0	3	1	3	9	15	1	0	32	0	32	
신림동	0	1	2	7	6	11	1	0	28	3	31	
시흥동	9	6	6	4	1	0	0	0	26	4	30	
계	18 (16.5)	11 (10.1)	10 (9.2)	14 (12.8)	18 (16.5)	35 (32.1)	3 (2.8)	0 (0.0)	109 (100.0)	19	128	

~6,000千원 階層의 家口數가 35家口 (32.1%)로 가장 많고 다음이 1,801~3,000千원과 480千원 및 그 未滿으로 각각 18家口 (16.5%)이며 6,000千원 以上の 家口는 3家口 (2.8%)에 不過하다.

家計總所得의 階層別 分布를 洞別로 보면 시흥동은 低所得地域이고 신림동은 中所得地域인 特性이 대단히 分明히 나타나는 데 비하여 가회동은 低所得과 高所得이 混在하고, 상도동은 비교적 中·高所得地域임을 알 수 있다.

### 2. 實物資產階層別 家口數

家計의 總所得이 流量(flow)을 포착한 데 대하여 實物資產은 貯量(stock)을 포착하는 것으로서 所得 내지 消費, 貯蓄 등의 조사시에 所得 등이 過少報告되는 것을 補完해 주는 역할도 하고 또한 그 자체가 家計調査에서 대단히 중요한 變數이기도 하다.

實物資產의 分布狀態를 <表 2>에서 보면 애당초 예상했던 地域間的 전체적인 所得水準의 差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다. 즉 가회동은 實物資產의 階層別로 볼 때 다른 地域보다 현저히 高資產·高所得의 特性이 뚜렷하여 10,001千원 以上の 家口가 전체 33家口中 28家口에 이른다. 이에 反하여 시흥동은 전체 26家口中 1,000千원 이하의 實物資產을 가진 家口가 20家口에 이르러 그 低資產·低所得의 狀態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상도동과 신림동은 標本設計에서 예상한 分포를 거의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表 2> 實物資產階層別 家口數

지역	실물자산	100千원	501~	1,001~	2,001~	5,001~	10,001	소	계	미	상	계
	이하	101~500	1,000	2,000	5,000	10,000	이상					
가회동	0	1	0	0	2	2	28	33		2		35
상도동	1	2	1	1	8	7	12	32		0		32
신림동	0	0	0	1	3	16	11	31		0		31
시흥동	2	10	8	2	4	0	0	26		4		30
계	3 (2.5)	13 (10.7)	9 (7.4)	4 (3.3)	17 (13.9)	25 (20.5)	51 (41.8)	122 (100.0)		6		128

### 3. 金融資產階層別 家口數

金融資產階層別 家口數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未詳으로 보고된 家口數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 미상은 특히 高所得地域인 가회동과 低所得地域인 시흥동에서 월등히 많은데 이것은 가회동의 경우 실제 金融資產이 있는데도 應答을 기피한 때문이 아닌가 여겨지고, 시흥동의 경우에는 그와 대조적으로 金融資產이 없는 家口들이 많이 未詳으로 처리되지 않았는가 추측된다(<表 3> 참조).

金融資產의 保有는 대체로 100千원 이상에서 5,000千원 이하의 범위 내에 그 分布가 집

〈表 3〉 金融資産階層別 家口數

지역	금융자산	100千원	101~	501~	1,001~	2,001~	5,001~	10,001	소	계	미	상	계
	이하	500	1,000	2,000	5,000	10,000	이상						
가회동	1	4	4	5	3	0	0	17	18	35			
상도동	3	5	3	7	9	0	1	28	4	32			
신림동	3	7	5	5	8	1	0	29	2	31			
시흥동	1	4	1	1	0	0	0	7	23	30			
계	8 (9.9)	20 (24.7)	13 (16.1)	18 (22.2)	20 (24.7)	1 (1.2)	1 (1.2)	81 (100.0)	47	128			

증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4. 負債金額階層別 家口數

負債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꺼리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는 바 이 조사결과에서도 應答家口中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84家口가 未詳으로 처리되어 있고 불과 44家口만이 負債의 內詳을 밝혔다. 未詳으로 처리된 家口中에는 물론 상당수의 家口가 전혀 負債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負債의 규모도 대체로 100千원에서 2,000千원 내지 5,000千원 범위 내에 그 分布가 집중되어 있다.

〈表 4〉 負債金額 階層別 家口數

지역	부채	50千원	51~100	101~500	501~	1,001~	2,001~	5,001	소	계	미	상	계
	이하	1,000	2,000	5,000	이상								
가회동	0	0	2	3	3	1	0	9	26	35			
상도동	0	1	4	0	2	3	1	11	21	32			
신림동	0	1	8	3	4	1	0	17	14	31			
시흥동	0	1	6	0	0	0	0	7	23	30			
계	0 (0.0)	3 (6.8)	20 (45.5)	6 (13.6)	9 (20.5)	5 (11.4)	1 (2.2)	44 (100.0)	84	128			

5. 家族數階層別 家口數

標本으로 抽出된 家口의 家族數를 보면 2名 또는 그 未滿의 가족수를 가진 家口는 불과 8家口(6.5%)에 不過하고 3~5名家族이 62家口(50.0%), 다음이 6~10名으로 54家口(43.5%)로 되어 있다.

地域別로 별다른 특징은 없으나 가회동은 상대적으로 大家族的이며, 상도동과 신림동은 3~5名階層에 分布가 더욱 집중되어 있고 시흥동도 6~10名階層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1名 以上の 家族數를 가진 家口는 124家口中 단 한 家口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5〉 참조).

<表 5> 家族數階層別 家口數

지역	가족수	2명 이하	3~5	6~10	11이상	소 계	미 상	계
가 회 동		0	15	16	0	31	4	35
상 도 동		3	16	13	0	32	0	32
신 립 동		3	19	9	0	31	0	31
시 흥 동		2	12	16	0	30	0	30
계		8(6.5)	62(50.0)	54(43.5)	0(0.0)	124(100.0)	4	128

6. 家口主年齡別 家口數

家口主의 年齡에 따라 家口의 分布를 보면 비교적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즉 高所得地域인 가회동은 대체로 家口主의 年齡構成이 높은 대신 低所得地域인 시흥동에서의 家口主의 年齡은 대체로 낮고 또한 20代, 30代, 40代와 50代에 걸쳐 고르게 分布되어 있다.

地域마다 低年齡의 家口主의 家口가 所得이 반드시 낮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所得水準이 兩地域에서 대체로 대조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個人의 一生(life cycle)中에서 年齡이 젊을 때에는 低所得일 가능성이 크고 中·高年齡일 때에 所得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家口主年齡別 地域分布는 흥미있는 資料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물론 시흥동에 살고 있는 젊은 家口主의 低所得이 中·高年齡에 도달했을 때 가회동의 平均所得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家口主의 年齡別로 볼 때 가장 많은 家口數가 30代, 40代, 50代, 20代 및 60代의 順으로 分布되어 있다(<表 6>참조).

<表 6> 家口主年齡別 家口數

지역	연령	30세	31~40	41~50	51~60	61	소 계	미 상	계
		이 하				이 상			
가 회 동		0	4	12	17	1	34	1	35
상 도 동		2	13	12	4	1	32	0	32
신 립 동		5	16	8	1	1	31	0	31
시 흥 동		8	8	8	5	1	30	0	30
계		15(11.8)	41(32.3)	40(31.5)	27(21.3)	4 (3.2)	127(100.0)	1	128

7. 家口主學歷別 家口數

家口主의 學歷別 家口數의 分布를 보면 大學卒業者家口가 70家口로서 전체의 56.5%를 차지하고 다음이 高等學校卒業者家口 26家口 (21.0%), 中學 및 國民學校卒業者家口는 다 같이 14家口(각각 11.3%)를 이루고 있다.

이 學歷別 家口數構成의 특징은 高所得地域인 가회동의 學歷이 단연 높고, 반면에 低所

〈表 7〉 家口主學歷別 家口數

지역	학 령	무 학	국 졸	중 졸	고 졸	대 졸	소 계	미 상	계
가 회 동		0	0	0	4	30	34	1	35
상 도 동		0	1	6	8	17	32	0	32
신 립 동		0	0	0	9	21	30	1	31
시 흥 동		0	13	8	5	2	28	2	30
계		0 (0.0)	14(11.3)	14(11.3)	26(21.0)	70(56.5)	124(100.0)	4	128

得地域인 시흥동의 경우는 家口主의 學歷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이 學歷과 所得과의 相關關係는 비록 地域特徵만을 가지고 본 것이지만 年齡과 所得과의 相關關係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보인다(〈表 7〉참조).

8. 家口主職業別 家口數

가구주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지역별로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특정 직업에 가구주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회동의 경우는 총 35가구주중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가 12명이나 되는데 반하여 저소득지역인 시흥동의 경우는 총 30가구주중 21명이 생산 및 관련직,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무자의 직업을 갖고 있다. 이 밖에 중간소득계층지역인 상도동과 신림동에서는 블루·칼라(blue collar)직업 종사자는 대단히 적고 대체로 화이트·칼라(white collar)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도 가회동처럼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못하다(〈表 8〉참조).

〈表 8〉 家口主職業別 家口數

지역	가구주직업	직업분류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사무 및 관리직 종사자	관공 사	매 사	서비스 종사자	농, 축, 임업 및 수산업 종사자	생산 및 관련직 종사자	및 운수장비 및 운수노무자	미 상
가 회 동		12	7	15	0	0	0	1	0	0	35
상 도 동		4	9	11	2	1	0	5	0	0	32
신 립 동		7	7	13	1	0	0	1	2	0	31
시 흥 동		0	0	8	0	1	0	21	0	0	30
계		23 (18.0)	23 (18.0)	47 (36.7)	3 (2.3)	2 (1.6)	0 (-)	28 (21.8)	2 (1.6)	0	128 (100.0)

이렇게 볼 때 가구주의 직업별 분류와 전반적인 지역별 소득수준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貯蓄의 現狀

#### 1. 貯蓄率

근로자가구 전체에 대하여 볼 때 平均貯蓄率의 계산이 가능한 家口數는 101家口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우선 平均貯蓄의 階層別 分布를 보면 하나의 特徵的인 현상은 家口數가 여러가지 높이의 저축율에 대단히 골고루 分布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 저축율계층에 집중된 현상이 없이 대체로 10%이하 계층과 그 위의 각 10%포인트 마다의 계층에 비슷한 度數로 分布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균 저축율 0.6%이상 10%까지에 14가구(13.9%), 10%이상 20%까지에 23가구(22.8%), 20%이상 30%까지에 18가구(17.8%), 30%이상 40%까지에 18가구(17.8%), 40%이상 50%까지에 15가구(14.9%)등으로 되어있어 50%이하의 경우는 10%이상 20%까지가 약간 더 높고 다른 계층에서는 거의 비슷하다(〈表 9〉참조).

〈表 9〉 平均貯蓄率階層別 家口數

지역	평균저축율	저축율 구간									소계	미상	계
		0.5% 이하	0.6 ~ 10.0	10.1 ~ 15.0	15.1 ~ 20.0	20.1 ~ 30.0	30.1 ~ 40.0	40.1 ~ 50.0	50.1 이상				
가회동	0	3	2	7	5	3	4	5	29	6	35		
상도동	0	5	3	0	8	9	5	2	32	0	32		
신림동	0	3	2	6	4	5	4	5	29	2	31		
시흥동	0	3	1	2	1	1	2	1	11	19	30		
계	0	14	8	15	18	18	15	13	101	27	128		
	(0.0)	(13.9)	(7.9)	(14.9)	(17.8)	(17.8)	(14.9)	(12.9)	(100.0)				

이것은 一見 高所得地域과 低所得地域을 統合한 결과라고 速斷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실은 各地域에 대하여 개별적인 평균저축율 계층별 가구수의 분포를 보아도 그와 같은 커다란 分散은 거의 예외가 없다. 이렇게 볼 때 家計의 貯蓄率을 決定하는 要因은 우선 대단히 多様하여 個別家計의 여러가지 條件에 따라 各樣各色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2. 貯蓄하지 않는 理由

조사에서는 家口마다 우선 貯蓄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면 다섯가지의 項目을 제시한 後 그 理由를 고르게 하였다. 그 結果인 〈表 10〉에 의하면 75.0%의 해당가구가 저축할 여유가 없다고 대답하고 있고 빛, 기타의 順으로 理由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저축할 여유가 없다고 한 것은 비단 低所得地域인 시흥동에 局限된 것이 아니고 各地域에서 모두 대부분의 이유로서 들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것은 저축이 소득에서 消

〈表 10〉 貯蓄 많은 理由別 家口數

이유 지역	① 저축할 여유가 없다.	② 빚이 있기 때문에	③ 저축보다는 매일의 생활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④ 돈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⑤ 기타	계
가회동	8	0	1	1	0	10
상도동	3	0	0	1	1	5
신림동	6	2	1	0	1	10
시흥동	19	2	0	0	2	23
계	36(75.0)	4(8.3)	2(4.2)	2(4.2)	4(8.3)	48(100.0)

費를 뺀 것이므로 비록 소득이 높더라도 소비가 역시 높으면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게 되는 것은 비록 高所得地域에서도 항상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앞서 근로자 標本의 特性에서 본 바와 같이 高所得地域에도 低所得家口가 상당수 있었다는 것도 이와 같은 結果의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3. 貯蓄의 目的

다음에 貯蓄의 目的을 알아보기 하여 〈表 11〉에서와 같이 9가지의 目的을 例示하고 3가지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結果에 의하면 저축의 가장 큰 目的은 ② 자녀교육비의 마련(25.6%)이고 다음이 ① 질병, 기타 긴급한 資金需要에 대비하는 것(24.4%), ⑤ 老後の 생활안정(13.1%), ⑨ 不動産購入, 家屋新築(11.1%) 등의 順이다.

그리고 高所得地域에서는 ① 자녀교육비, ② 질병 기타 대비, 그리고 ⑤ 노후대비 등이 높은 비중의 저축목적인데 대하여 低所得地域에서는 ② 자녀 교육비, ⑨ 不動産購入 등이

〈表 11〉 貯蓄目的別 家口數

저축하는 목적 지역	① 질병이나 갑자기 필요할 자금에 대비하기 위하여	② 자녀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③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④ 앞으로의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⑤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⑥ 목돈이 드는 생활용품 구입하기 위하여
가회동	21	24	10	3	16	6
상도동	23	22	7	11	17	2
신림동	27	22	3	9	12	5
시흥동	7	24	6	8	2	10
계	88(24.4)	92(25.6)	26(7.2)	31(8.6)	47(13.1)	23(6.4)

  

저축하는 목적 지역	⑦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⑧ 차입금상환을 위하여	⑨ 부동산구입, 가옥신축을 위하여	소	계	미	상	계
가회동	1	3	5	89	16	105		
상도동	1	2	8	93	3	96		
신림동	1	0	11	90	3	93		
시흥동	0	5	16	88	2	90		
계	3(0.8)	10(2.8)	40(11.1)	360(100.0)	24	384		



주된 저축목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사실이며 이러한 사실에 대응하여 政策的으로 다른 貯蓄手段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表 11〉 참조).

4. 貯蓄의 方式

貯蓄을 함에 있어서 그 時期와 金額上의 規則性을 물어본 결과 〈表 12〉와 같은 資料를 얻었다. 表에 의하면 一定時期에 一定金額을 저축하는 家口는 應答한 貯蓄家口의 60.6%에 이르고 있고 時期는 規則的이나 金額은 一定치 않은 家口가 14.9%, 時期와 金額이 모두 不規則的이고 여유가 있을 때 隨時 저축한다는 家口가 24.5%이다.

따라서 規則的으로 每月 저축하는 家口가 75.5%라는 상당히 높은 水準임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저축하는 家口數中의 百分比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 未詳으로 처리된 家口에서는 모두 每月 규칙적으로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每月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家口는 전체가구(128가구)의 55.5%로 된다.

〈表 12〉 貯蓄方式別 家口數

지역	저축방식		① 매달 일정 한 금액을 꼭 저축한다	② 매달 저축 은 하지만 액 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③ 여유가 있 을 때 수시로 저축한다.	소 계	비 상	계
	회 동	도 동						
가 회 동			17	7	8	32	3	35
상 도 동			22	4	4	30	2	32
신 립 동			15	2	7	24	7	31
시 흥 동			3	1	4	8	22	30
계			57(60.6)	14(14.9)	23(24.5)	94(100.0)	34	128

5. 더 貯蓄하지 않는 理由

조사대상가구에 대하여 1976年 7月 1일부터 1977年 6月 30일까지의 貯蓄內容을 물은 뒤 에 그 기간중에 더 저축을 하지 않은 理由를 물었다. 그에 대하여 81.1%가 ① 소득이 낮아 더 이상 消費支出을 줄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이 밖에 提示한 理由에는

〈表 13〉 더 貯蓄하지 않는 理由別 家口數

지역	더 저축하지 않는 이유		① 소득이 낮아 더 이상 지출을 줄 수 없었기 때문으로	② 더 이상 저 축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 았기 때문에	③ 물가 상승 으로 저축된 가치가 없어 것을 우려했 기 때문에	④ 미래를 위 한 저축 보다 현재의 중요하 므로	⑤ 기 타	계
	회 동	도 동						
가 회 동			20	1	0	3	2	26
상 도 동			24	0	1	1	1	27
신 립 동			23	1	0	2	3	29
시 흥 동			10	2	0	0	1	13
계			77(81.1)	4 (4.2)	1 (1.1)	6 (6.3)	7 (7.4)	95(100.0)

④ 未來를 위한 저축보다 현재의 소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6.3%) 또는 ② 더 이상의 저축 필요성이 없다(4.2%)는 등에 약간의 반응이 있었다(〈表 13 참조〉). 그리고 ① 번의 이유에 집중적인 것은 地域의 차이와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消費 및 類似支出에 대한 貯蓄觀念

家計單位에서 생각하고 있는 저축의 概念을 파악하기 위하여 消費, 그와 類似한 支出, 其他의 項目을 提示하고 그것들에 대한 支出을 消費라고 보는지 貯蓄이라고 보는지를 물었다. 〈表 14〉에는 그 응답 가운데서 저축이라고 본 家口數를 項目別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合計에는 表의 註에 쓴 바와 같이 전체 128家口中에서 이들 家口數가 차지하는 百分比를 表示하였다.

그 結果에 의하면 ⑦ 土地購入(93.0%), ② 住宅購入(91.4%)에 대하여는 거의 대부분이 그 支出을 저축으로 보고 있고 그 밖에도 ④ 教育費支出(74.2%), ③ 住宅修理(65.6%), ⑧ 負債償還(61.7%), ⑩ 貴金屬購入(60.9%) 등은 저축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높다. 이 가운데 특히 ④ 教育費支出을 저축이라고 보는 家口數가 74.2%나 된다는 것은 韓國의 높은 教育熱이 단순한 虛榮의 結果가 아니고 상당한 정도 將來에 대한 投資라는 經濟的 選擇行爲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所得水準이 다른 地域間에 있어서도 대체로 提示된 項目에 대하여 저축이라고 보는 정도는 비슷한 것 같다. 다만 ⑤ 自動車購入에 대하여는 高所得地域의 家口中에서 저축이라고 보는 度數가 매우 낮은데 反해서 低所得地域의 家口中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家口가 저축으로 보고 있는 것이 注目할 만하다(〈表 14〉 참조).

〈表 14〉 消費 및 類似支出을 貯蓄이라고 보는 家口數

項 目	① 피부구입	② 주택구입	③ 주택수리	④ 교육비지출	⑤ 자동차구입	⑥ 텔레비, 냉장고, 피아노 등 내구재구입	⑦ 토구	⑧ 지부채상환	⑨ 의상값	⑩ 귀금속구입	계
가 회 동	6	32	27	29	4	12	33	18	9	21	191
상 도 동	0	31	18	25	3	5	31	23	9	21	166
신 립 동	2	31	18	20	4	10	31	22	13	18	169
시 흥 동	9	23	21	21	15	14	24	16	6	18	167
계 (1)	17 (13.3)	117 (91.4)	84 (65.6)	95 (74.2)	26 (20.3)	41 (32.0)	119 (93.0)	79 (61.7)	37 (28.9)	78 (60.9)	693

註: (1) ( )內的 數字는 전체 128家口中에서 各項目을 貯蓄이라고 본 家口數의 百分比인.

7. 貯蓄心の 教育與否

子女에 대하여 貯蓄心을 길러주는지에 관한 문제는 현재의 既成世代의 저축에 관한 관심 뿐만 아니라 未來의 저축수준의 결정을 집착케하는 중요한 尺度라고 할 수 있다.

〈表 15〉에 의하면 응답을 한 117家口中 길러준다고 대답한 家口는 95家口로서 전체의 81.2

〈表 15〉 子女에 대한 貯蓄心教育與否別 家口數

지 역	여 부	길 러 준 다	그 령 지 않 다	소 계	미 상	계
가 회 동		30	1	31	4	35
상 도 동		29	1	30	2	32
신 립 동		22	6	28	3	31
시 흥 동		14	14	28	2	30
계		95(81.2)	22(18.8)	117(100.0)	11	128

%이고 나머지 18.8%에 해당하는 22家口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家口에서는 子女들에 대하여 저축심의 教育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축심 교육문제는 所得階層別 地域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엿보인다. 즉 가회동 및 상도동의 경우는 97% 이상이 教育을 시키고 있다고 응답한 反面, 신림동의 경우는 79%, 시흥동의 경우는 50%가 저축심 教育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高所得地域일수록 그 저축심 教育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家口主의 學歷, 年齡 등의 差異에도 부분적으로 基因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差異는 역시 소득수준에 의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低所得家口에서도 저축심 教育은 필요하고 또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經常所得이 워낙 낮고 보면 저축심 昂揚의 熱意가 낮아질 것으로도 보인다.

#### IV. 貯蓄率의 決定要因

##### 1. 家計의 所得 및 資産, 其他

###### (1) 所得水準과 貯蓄率

家計의 所得階層別 平均貯蓄率을 보기에 앞서 지역별 平均저축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4個地域 전체의 總平均貯蓄率은 30.23%이고, 가회동은 30.83%, 상도동 29.11%, 신림동 32.66%, 그리고 시흥동은 25.49%로서 역시 低所得地域의 저축율은 平均보다 낮다.

그리고 家計의 소득계층별로 전체 가구의 平均저축율을 보면 최하위의 그 階層은 의외로 높은 반면 841千원 以上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平均저축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 平均저축율은 미상으로 처리된 시흥동의 19가구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非貯蓄家口 일 가능성이 큰 가구들이 완전히 除去된 상태에서 계산된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過大評價되어 있으며 非貯蓄家口의 數가 훨씬 많은 시흥동 등에서는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음을 留意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非現實的인 過大評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未詳으로 처리된 家口

를 非貯蓄家口 즉 저축율이 0인 가구로 假定하고 地域別로 다시 平均저축율을 계산한 것이 <表 16>의 平均 B이다. 이에 의하면 시흥동의 平均저축율은 9.35%에 불과하고 상도동을 제외한 餘他の 洞에서도 저축율이 低下되었다.

<表 16> 家計總所得階層別 平均貯蓄率

지역	총소득 480千원 이	481	841	1,201	1,801	3,001	6,001	12,001	전가구 (A)	미상	전가구 <sup>(1)</sup> (B)	
		~ 840	~ 1,200	~ 1,800	~ 3,000	~ 6,000	~ 12,000	이상				
가회동	가구수	2	2	1	0	8	14	2	0	29	6	35
	저축율(%)	53.50	40.24	54.45	—	27.10	28.69	16.87	—	30.83	—	25.54
상도동	가구수	0	2	2	2	8	16	2	0	32	0	32
	저축율(%)	—	24.49	25.77	21.12	32.57	29.12	31.18	—	29.11	—	29.11
신림동	가구수	0	1	1	9	6	11	1	0	29	2	31
	저축율(%)	—	58.82	5.45	25.83	30.36	34.86	84.70	—	32.66	—	30.55
시흥동	가구수	0	1	4	5	1	0	0	0	11	19	30
	저축율(%)	—	50.00	16.95	18.23	71.42	—	—	—	25.49	—	9.35
평균	가구수	2	6	8	16	23	41	5	0	101	27	128
	저축율(%)	53.50	39.71	22.40	22.86	31.78	30.51	36.16	—	30.23	—	24.13

註: (1) 未詳에 대하여 貯蓄率 0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地域別 平均貯蓄率임.

(2) 資産規模와 貯蓄率

家計의 總資産所有의 規模에 따라서도 저축율은 상당히 左右되리라고 생각된다. 즉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資産의 크기가 클수록 저축율은 낮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 調査에서는 標本의 규모가 너무 작아 <表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總資産와 階層은 不過 세가지 區分밖에 할 수 없었다. 表에는 總所得階層別, 資産階層別 貯蓄率이 表示되어 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전가구의 경우는 세가지 다른 資産階層에 있어서 資産이 5,000千원 및 그미만의 경우 보다 5,001~20,000千원의 경우가 저축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으며 이 중간자산계층과 20,001千원의 이상 계층사이에는 보통 예상할 수 있는 바에 따라 資産이 증가할수록 저축율이 低下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전체 家口를 세가지 소득계층으로 크게 나누어 놓고 資産과 貯蓄率과의 관계를 보면 所得이 낮은 쪽에서 처음 두계층에서는 전체 家口에서와 비슷한 경향이 엿보이고 總所得 3,001千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오히려 資産의 크기와 貯蓄率 사이에 正의 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3) 負債規模와 貯蓄率

負債의 規模와 平均貯蓄率을 알아보기 위하여 所得階層別, 負債金額別 家口數와 平均貯蓄率을 표시한 것이 <表 18>이다. 이에 의하면 보통 예상되는 바와 같이 負債金額의 규모가

〈表 17〉 家計總資産階層別 平均貯蓄率

지역	종자산	총소득										총평균												
		1,200만원 이하		1,201~3,000		3,001 이상		전		구														
		5,000 이하	5,001~20,000 이상	5,000 이하	5,001~20,000 이상	5,000 이하	5,001~20,000 이상	5,000 이하	5,001~20,000 이상	5,000 이하	5,001~20,000 이상													
가	회	동	가	저	수	1	3	53.82	47.16	1	1	31.24	9.30	42.00	1	13	29	30.83						
			구	저	축	3	1	33.33	25.13	4	4	27.90	31.87	—	1	12	5	9	18	33.46				
상	도	동	가	저	수	1	1	58.82	—	1	1	17.97	26.87	37.10	—	9	3	2	22	29	32.66			
			구	저	축	5	5	23.56	—	6	6	27.09	—	—	—	—	—	11	11	—	—	25.49		
평	관	동	가	저	수	11	4	55.07	47.16	11	23	26.55	29.12	23.20	42.00	1	1	27	18	23	54	101	30.23	
			구	저	축	23.37	4	23.37	23.37	11	23	26.55	29.12	23.20	42.00	1	1	27	18	23	54	23	28.77	42.00

〈表 18〉 負債金額階層別 平均貯蓄率

지역	부채금액	총소득										총평균												
		1,200만원 이하		1,201~3,000		3,001 이상		전		구														
		50 이하	501 이상	50 이하	501 이상	50 이하	501 이상	50 이하	501 이상	50 이하	501 이상													
가	회	동	가	저	수	1	4	36.76	51.29	1	2	16.66	21.56	31.40	1	3	12	12	2	6	21	29	30.83	
			구	저	축	3	1	21.04	37.38	1	1	30.30	30.61	30.24	—	1	5	12	12	5	6	21	32	29.11
상	도	동	가	저	수	1	1	58.82	—	5	5	20.76	28.45	33.71	—	3	3	6	6	9	8	12	29	32.66
			구	저	축	5	5	23.56	—	1	1	23.43	—	—	—	—	—	—	—	1	1	10	11	25.49
평	관	동	가	저	수	4	11	36.76	38.10	4	8	21.77	27.00	30.72	—	5	11	30	30	17	20	64	101	30.23
			구	저	축	17.14	11	36.76	38.10	4	8	21.77	27.00	30.72	—	5	11	30	30	17	20	64	101	30.23

할수록 평균저축율이上昇하는 현상은 전체 평균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큰 차이는 없지만 그 반대현상을 示顯하고 있다. 즉 부채금액이 51千원 이상 500千원 이하에서는 평균저축율이 29.28%이고 501千원 이상에서는 28.44%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관계는 소득계층별로 다시 나누어 볼 때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계층에서는 잘 成立되고 있다. 즉 그와 같은 소득계층에서는 부채가 많을수록 평균저축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연간소득 3,001千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그 반대현상이 부채금액계층 간에 커다란 평균저축율의 격차를 가지면서 나타나고 있다(〈表 18〉 참조).

〈表 19〉 이웃 所得에 대한 評價別 平均貯蓄率

총소득 이웃소득과의 비교 지역		1,200千원 이하			1,201~3,000			미 상
		더 높다고 생각한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더 낮다고 생각한다	더 높다고 생각한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더 낮다고 생각한다	
가 회 동	가구수 저축율	— —	4 51.29	— —	— —	4 31.19	2 28.95	2 17.06
상 도 동	가구수 저축율	— —	3 21.04	1 37.38	1 25.53	5 24.56	3 29.16	1 67.01
신 립 동	가구수 저축율	— —	— —	2 32.13	— —	7 31.81	7 23.76	1 25.64
시 흥 동	가구수 저축율	2 7.05	1 37.03	2 33.33	2 23.56	3 30.67	1 23.43	— —
평 균	가구수 저축율	2 7.05	8 38.17	5 33.66	3 24.22	19 29.59	13 25.78	4 25.28

  

총소득 이웃소득과의 비교 지 역		3,001 이상			전 가 구				총평균	
		더 높다고 생각 한다	비슷하다 고 생각 한다	더 낮다 고 생각 한다	미 상	더 높다고 생각 한다	비슷하다 고 생각 한다	더 낮다 고 생각 한다		미 상
가 회 동	가구수 저축율	— —	14 24.77	2 53.53	1 18.37	— —	22 30.76	4 41.24	3 17.50	29 30.83
상 도 동	가구수 저축율	2 29.06	13 30.29	3 25.45	— —	3 27.88	21 27.60	7 28.71	1 67.01	32 29.11
신 길 동	가구수 저축율	10 35.02	2 58.99	— —	— —	— —	19 30.15	9 38.73	1 25.64	29 32.66
시 흥 동	가구수 저축율	— —	— —	— —	— —	4 15.31	4 32.26	3 30.03	— —	11 25.49
평 균	가구수 저축율	2 29.06	37 29.48	7 43.05	1 18.37	7 20.69	66 29.67	23 34.98	5 29.03	101 30.23

(4) 이웃 所得과의 比較와 貯蓄率

이웃의 소득수준이 어떤 家計의 소비 및 저축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같은 班(最下行政單位)에 속해 있는 이웃 家計의 소득과 비교하여 해당 家計의 소득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를 묻고 그 區分에 따라 평균저축율을 표시해 보았다.

그 결과인 <表 19>에 의하면 소득계층 전체를 통털어 볼 때에는 이웃보다 소득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가구들의 평균저축율이 가장 낮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가계들의 평균저축율이 그보다 더 높으며 이웃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가계들의 것이 가장 높다. 이것은 스스로의 총소득이 이웃보다 낮다고 생각할수록 저축을 더욱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家計들의 스스로와 이웃과의 比較는 물론 실제의 소득수준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班內의 사정의 비교라면 소득수준 그 자체에서 크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행태에 대한 해석은 혹시 자신의 가계 소득이 이웃보다 높다고 생각하여 소득이 높으니까 저축을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당연히 소비도 높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所致가 아닌가 추측해 볼 수도 있다(<表 19> 참조). 이렇게 볼 때 한국 가계의 소비, 저축행태에 있어서도 相對所得假說的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5) 自家所有與否와 貯蓄率

家口의 住宅所有形態에 따라 평균저축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기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이 <表 20>이다. 이 表에 의하면 自家를 所有한 가구의 저축율이 다른 住居形態, 즉 傳貰, 月貰, 無賃舍宅, 기타의 경우보다 평균저축율이 높다. 그리고 그와 같은 특징은 소득

<表 20> 自家所有與否別 平均貯蓄率

자가소유여부 지역	총소득	1,200千원 이하				1,201~3,000				3,001 이상				전 가 구				총평균
		自家		전세 無賃舍宅기타		自家		전세 無賃舍宅기타		自家		전세 無賃舍宅기타		自家		전세 無賃舍宅기타		
		自	家	전	세	自	家	전	세	自	家	전	세	自	家	전	세	
가회동	가구수 저축율	3 50.24	1 54.45	—	8 27.10	—	—	16 25.35	—	1 66.67	27 28.63	1 54.45	1 66.67	29 30.83				
상도동	가구수 저축율	3 21.04	1 37.38	—	9 28.62	1 45.25	—	16 30.99	2 16.19	—	28 29.16	4 28.75	—	32 29.11				
신림동	가구수 저축율	—	2 32.13	—	9 36.76	6 13.97	—	10 41.05	2 28.83	—	19 39.02	10 20.57	—	29 32.66				
시흥동	가구수 저축율	3 30.29	2 13.45	—	3 21.45	3 32.74	—	—	—	—	6 25.87	5 25.02	—	11 25.49				
평 균	가구수 저축율	9 33.86	6 30.50	—	29 29.98	10 22.73	—	42 31.24	4 22.51	1 66.67	80 31.07	20 25.01	1 66.67	101 30.23				

계층별이나 지역별 차이에 관계없이 거의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다(〈表 20〉 참조).

### 2. 家口主의 特性

#### (1) 家口主의 年齡과 貯蓄率

標本의 규모관계로 가구주의 연령계층을 40세 및 그 미만, 41~60세, 61세 이상의 셋으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라 가구주의 연령별 평균저축율을 나타낸 것이 〈表 21〉이다.

이 表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가구에 대하여는 40세 및 그 미만에 속한 가구의 저축율이 41~60세 가구의 그것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계층별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계층에서는 그 관계가 逆轉되어 있고 여타의 높은 소득계층에서는 전체의 관계와 같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度數가 적어서 不安定하지만 가회동과 시흥동에서의 행태는 전체의 방향과 같고, 반면 상도동 및 신림동에서는 41~60세계층의 가구가 40세 및 그 미만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저축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家口主의 學歷과 貯蓄率

가구주의 學歷에 따라 저축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면 度數가 比較할 만큼 큰 中·高卒業者와 大學卒業者間의 저축율은 前者보다 後者에 속하는 가구주들이 지역별로나 소득계층별로나 더 높다.

전체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보면 中·高卒業者家口主의 평균저축율이 25.27%인데 대하여 大學卒業者家口主의 그것은 33.34%이다. 그런데 한가지 특이한 것은 無學, 國卒, 또는 國民學校中退者家口主의 평균저축율은 전체 근로자가구에 있어서는 中·高卒業者家口主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고 극히 미미하지만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表 22〉 참조).

#### (3) 家口主의 職業과 貯蓄率

職業도 소득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일정한 位階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大分類에 의한 것이지만 직업별로도 상당한 평균저축율의 隔差가 存在할 것으로 기대된다.

〈表 23〉에 의하면 그다지 큰 隔差는 아니지만 역시 전문 및 기술직, 행정 및 관리직등의 저축율은 높고 사무 및 관련직, 생산직, 운수장비, 운전사, 단순노무자 등의 저축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소득계층별로 구분해 보아도 찾아 볼 수 있고 지역별로도 시흥동을 제외하고는 나타나고 있다.

### 3. 家族의 構成

#### (1) 家族數와 貯蓄率



〈表 21〉 家口主年齡別 平均貯蓄率

지역	가구주연령	총소득										총평균															
		1,200만원 이하					1,201~3,000																				
		40세 이하	41-60	61 이상	40세 이하	41-60	61 이상	40세 이하	41-60	61 이상	40세 이하		41-60	61 이상													
가	회	등	수	54.45	46.87	—	41.95	18.57	4	—	16.66	44.36	23.26	3	13	—	44.77	26.85	7	21	—	16.66	1	29	30.83		
상	도	등	수	28.78	14.16	—	28.32	36.96	4	—	4.76	27.06	31.18	8	10	—	27.74	31.92	15	16	—	4.76	1	—	29.11		
신	림	등	수	5.45	—	—	11	4	—	—	38.80	39.66	9	3	—	29.88	37.26	21	7	—	58.82	1	—	29	32.66		
시	흥	등	수	25.63	20.44	—	32.17	22.02	3	—	—	—	—	—	—	—	28.90	21.39	6	5	—	—	—	—	11	25.49	
평	균	평균	수	27.89	34.65	—	28.96	29.18	16	1	4.76	16.66	34.94	28.20	20	26	—	31.23	29.44	49	49	—	31.79	2	1	101	30.23

〈表 22〉 家口主學歷別 平均貯蓄率

지역	가구주학력	총소득										총평균														
		1,200만원 이하					1,201~3,000																			
		무학·국졸 이하 (중퇴)	국졸	중고	대졸	대학 이상 (중퇴)	무학·국졸 이하 (중퇴)	국졸	중고	대졸	대학 이상 (중퇴)		무학·국졸 이하 (중퇴)	국졸	중고	대졸	대학 이상 (중퇴)									
가	회	등	수	—	—	5	48.39	—	2	5	16.66	21.56	31.40	1	15	—	24.30	32.18	3	15	—	16.66	1	29	30.83	
상	도	등	수	—	25.13	—	—	—	6	3	—	26.51	47.15	—	4	14	—	29.50	32.10	1	17	—	—	—	32	29.11
신	림	등	수	—	32.13	—	—	—	5	9	14.20	28.45	28.69	1	11	—	27.81	35.52	8	20	—	14.20	1	—	29	32.66
시	흥	등	수	43.51	10.25	—	22.02	23.43	1	2	—	23.43	36.55	—	—	—	30.61	13.55	5	4	—	—	—	—	11	25.49
평	균	평균	수	43.51	21.73	48.39	17.09	26.27	4	14	15.43	26.27	33.14	15.43	6	40	—	25.27	33.34	6	29	—	64	2	101	30.23



〈表 24〉 家族數階層別 平均貯蓄率

지역	가족수	총소득						전 가 구						총평균				
		1,200만원 이하			1,201~3,000			3,001 이상			전 가 구							
		2명 이하	3~5	6 이상	2명 이하	3~5명	6 이상	2명 이하	3~5	6 이상	2명 이하	3~5	6 이상					
가	회	동	가	저	수	수	1	2	5	1	9	5	2	15	11	3	29	
							52.15	33.33	11.13	20.41	92.50	28.75	20.87	36.21	32.64	21.79	54.97	30.83
상	도	동	가	저	수	수	1	2	6	4	2	9	7	3	16	13	3	32
							37.36	44.44	28.01	33.69	6.41	33.08	28.30	23.25	31.81	27.04	—	29.11
신	림	동	가	저	수	수	1	2	10	3	1	7	4	3	18	8	—	29
							58.82	5.45	21.86	41.10	38.92	37.13	42.35	37.22	29.86	37.26	—	32.66
시	흥	동	가	저	수	수	1	2	2	3	—	—	—	2	4	5	—	11
							33.33	20.44	12.55	22.02	—	—	—	40.83	22.94	21.39	—	25.49
평	균	관	가	저	수	수	2	8	3	20	15	3	25	16	53	37	3	101
							23.81	47.31	21.70	23.41	92.50	23.76	29.49	36.21	30.73	26.93	54.97	30.23

〈表 25〉 所得家族數比率別 平均貯蓄率

지역	가족수	총소득						전 가 구						총평균						
		1,200만원 이하			1,200~3,000			3,001 이상			전 가 구									
		20% 이하	20.1~50.0	50.1 이상	20% 이하	20.1~50.0	50.1 이상	20% 이하	20.1~50.0	50.1 이상	20% 이하	20.1~50.0	50.1 이상							
가	화	동	가	저	수	수	2	3	5	1	2	6	5	2	3	13	9	2	5	29
							51.79	46.12	18.35	15.90	54.58	33.27	23.10	16.87	28.86	30.38	29.97	16.87	39.15	30.83
상	도	동	가	저	수	수	3	—	3	7	—	9	8	1	—	15	15	2	—	32
							21.04	—	41.05	25.67	—	34.33	24.86	20.38	—	33.01	34.42	28.82	—	29.11
신	림	동	가	저	수	수	1	—	5	8	2	8	3	1	—	14	11	4	—	29
							5.45	—	36.05	23.85	21.80	39.63	37.42	38.92	—	35.91	27.55	35.83	—	32.66
시	흥	동	가	저	수	수	2	3	—	6	—	—	—	—	2	9	—	—	—	11
							43.51	10.25	—	32.51	—	—	—	—	43.51	21.48	—	—	—	25.49
평	균	관	가	저	수	수	8	6	2	13	2	23	16	4	3	44	44	8	5	101
							32.40	28.19	30.39	24.95	21.80	35.90	26.67	23.26	28.86	33.63	26.02	29.10	39.15	30.23

家族의 數와 평균저축율 사이에는 비교적 뚜렷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表 24>에 의하면 가족수가 적을수록 저축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보면 2명 또는 그 미만의 가족수를 가진 가구의 평균저축율은 32.88%인데 대하여 3~5명의 경우 30.73%, 6명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는 26.93%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度數가 너무 적은 탓인지 지역별, 소득계층별로는 이렇다 할 상관관계를 찾아 보기 힘들다(<表 24> 참조).

(2) 有所得家族數의 크기와 貯蓄率

<表 26> 在學家族數比率別 平均貯蓄率

총 소득 재학가족수비율		1,200千원 이하				1,201~3,000			
		20% 이하	20.1~50.0	50.1 이상	미 상	20% 이하	20.1~50.0	50.1 이상	미 상
		지 역	가 구 수 저 축 율	가 구 수 저 축 율	가 구 수 저 축 율	가 구 수 저 축 율	가 구 수 저 축 율	가 구 수 저 축 율	가 구 수 저 축 율
가 회 동	가 구 수 저 축 율	2 45.60	3 50.24	— —	— —	— —	1 17.47	1 24.80	6 33.56
상 도 동	가 구 수 저 축 율	2 40.91	2 9.35	— —	— —	3 23.89	2 30.45	1 39.92	4 32.58
신 립 동	가 구 수 저 축 율	— —	— —	— —	2 32.13	6 19.38	6 27.47	1 58.10	2 36.37
시 흥 동	가 구 수 저 축 율	1 16.66	3 17.04	— —	1 50.00	— —	2 34.44	— —	4 23.42
평 균	가 구 수 저 축 율	5 37.93	8 27.57	— —	3 38.09	9 21.18	11 28.37	3 40.94	16 31.13

  

총 소득 재학가족수비율		3,001 이상				전 가 구				총 평균
		20% 이하	20.1~50.0	50.1 이상	미 상	20% 이하	20.1~50.0	50.1 이상	미 상	
지 역	가 구 수 저 축 율	가 구 수 저 축 율	가 구 수 저 축 율	가 구 수 저 축 율	가 구 수 저 축 율	가 구 수 저 축 율	가 구 수 저 축 율	가 구 수 저 축 율	가 구 수 저 축 율	가 구 수 저 축 율
가 회 동	가 구 수 저 축 율	2 33.21	2 9.65	5 26.60	7 27.13	4 39.41	6 31.25	6 26.30	13 30.10	29 30.83
상 도 동	가 구 수 저 축 율	5 26.46	7 25.89	2 31.54	4 37.90	10 28.58	11 23.71	3 34.33	8 35.24	32 29.11
신 립 동	가 구 수 저 축 율	2 23.49	4 28.32	3 50.34	3 52.31	8 20.74	10 27.81	4 52.28	7 41.99	29 32.66
시 흥 동	가 구 수 저 축 율	— —	— —	— —	— —	1 16.66	5 24.00	— —	5 28.74	11 25.49
평 균	가 구 수 저 축 율	9 27.30	13 24.14	10 37.71	14 35.60	23 27.22	32 26.45	13 38.45	33 33.66	101 30.23

저축율은 한 가구의 所得을 버는 人員의 數나 그것의 전체 家口員數에 대한 比率의 다름에 따라 서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表 25>에는 有所得家族數의 전체 가구원수에 대한 比率別로 본 貯蓄率을 表示하였다.

表에 의하면 전체 표본가구에 대하여는 有所得家族數가 20% 또는 그 미만의 경우가 저축율이 33.63%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도 所得을 버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보통 1人當 소득의 규모는 작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과 부합된다. 왜냐하면 개 개인의 소득수준은 모두 다르며 1家口에서 2人이상의 有所得者가 있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家口主(최고소득자)의 소득수준이 그다지 높지 못하여 第2 또는 第3의 家計補助的인 소득자가 불가피하게 就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이 20% 또는 그 미만계층과 20.1~50.0%間的 비교에서는 그와 같은 관계가 지역별로나 소득계층별로 뚜렷한데 20.1~50.0%와 50.1% 이상의 계층간에는 그 관계가 그다지 뚜렷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逆轉되기도 한 것이 表에 나타나 있다(<表 25> 참조).

### (3) 在學家族數와 貯蓄率

在學中에 있는 家族數에 따라서 다른 사정이 同一하다면 저축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 즉 그 數가 많을수록 저축율이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와 같이 기대되는 高所得地域인 저축율은 가회동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地域 및 다른 所得階層에서는 뚜렷한 趨勢로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表 26> 참조).

## 4. 消費慣習 및 生活態度

### (1) 家計豫算作成興否

조사대상 근로자가구에서의 소비관습이나 생활태도 여하에 따라서 저축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하여 여러 側面에서 이와 관련되는 질문을 하였다.

먼저 家計의 經濟計劃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지 않는지, 세운다면 몇年 단위로 세우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전체 가구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가구는 30가구로 평균저축율은 26.31%였고, 세우는 가구는 평균저축율이 그보다 높았다. 1~2년간을 단위로 세우는 가구의 저축율은 40.14%(13가구), 3년이상에 대하여 세우는 가구의 저축율은 30.75%(50가구)였다. 그러나 이들의 지역별, 소득계층별 특성은 찾아 보기 어려웠다.

다음에 家計豫算의 作成興否別로 저축율을 본즉 豫算을 作成하고 있는 가구의 저축율이 하지 않는 가구에 비하여 예상한 대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즉 <表 27>에 의하면 예산을 작성하는 가구는 78가구에 평균저축율이 31.32%인데 하지 않는 가구는 22가구에 26.36%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家計의 豫算을 작성하는 것이 衝動的인 消費를 막고 가계의 저축

<表 27> 家計豫算作成與否別 平均貯蓄率

지역	작성여부	총소득		1,200千원 이하		1,201~3,000		3,001 이상			전 가 구			총 평균
		가구수	저축율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미상	한다	안한다	미상	
가 회 동	가구수	5	-	8	-	11	4	1	24	4	1	29		
	저축율	48.39	-	27.10	-	25.19	31.98	30.43	30.66	31.98	30.43	30.83		
상 도 동	가구수	4	-	6	4	14	4	-	24	8	-	32		
	저축율	25.13	-	41.97	12.75	29.23	29.74	-	31.73	21.24	-	29.11		
신 립 동	가구수	1	1	11	4	10	2	-	22	7	-	29		
	저축율	5.45	58.82	29.97	21.23	41.85	24.85	-	34.26	27.63	-	32.66		
시 흥 동	가구수	3	2	5	1	-	-	-	8	3	-	11		
	저축율	10.25	43.51	32.18	1.68	-	-	-	23.96	29.57	-	25.49		
평 균	가구수	13	3	30	9	35	10	1	78	22	1	101		
	저축율	29.13	48.61	31.97	15.29	31.57	29.66	30.43	31.32	26.36	30.43	30.23		

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지름길임을 알 수 있다. 度數가 적어서 정확한 추측은 말할 수 없지만 지역별, 소득계층별로 보아도 대체로 위의 결론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表 27> 참조).

(2) 所得處分優先別 貯蓄率

家計의 消費慣習 또는 生活態度上으로 所得을 處分함에 있어서 消費支出을 優先적으로 決定하느냐 貯蓄額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저축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때 물론 기대하는 방향은 저축우선결정 때에 저축율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

<表 28> 所得處分優先別 平均貯蓄率

지역	총소득	1,200千원 이하				1,201~3,000				3,001 이상				전 가 구				총 평균
		소지우	비출선	저우	축선	소지우	비출선	저우	축선	소지우	비출선	저우	축선	소지우	비출선	저우	축선	
가회동	가구수	3	1	1	3	3	2	5	8	3	11	17	6	29				
	저축율	50.24	54.45	36.76	10.76	50.13	17.46	17.71	33.92	25.19	24.69	39.68	24.41	30.83				
상도동	가구수	3	1	-	3	5	2	4	13	1	10	20	3	32				
	저축율	28.78	14.16	-	43.00	33.35	3.54	27.45	29.80	31.04	32.51	29.91	12.70	29.11				
신림동	가구수	2	-	-	9	4	2	5	7	-	16	11	2	29				
	저축율	32.13	-	-	25.79	35.67	19.92	50.26	30.98	-	34.23	32.69	19.92	32.66				
시흥동	가구수	3	-	2	4	1	1	-	-	-	7	1	3	11				
	저축율	39.51	-	20.44	23.53	23.43	3.37	-	-	-	30.38	23.43	14.75	25.49				
평 균	가구수	11	2	3	19	13	7	14	28	4	44	43	14	101				
	저축율	39.17	34.30	25.88	25.66	37.17	12.06	32.12	31.27	26.65	30.84	33.20	19.19	30.23				

〈表 28〉에 의하면 근로자가구 전체에서 예상된 바와 같이 저축을 優先하는 家口의 평균 저축율이 소비지출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가구의 저축율보다 높다. 그 度數와 평균저축율을 보면 소비지출 優先決定家口는 44가구에 저축율은 30.84%이고, 저축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가구는 43가구에 저축율은 33.20%로 약간 높다. 그러나 이것 역시 地域的,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볼 때 그에 따른 특징이나 체계적인 움직임은 찾기 어렵다(〈表 28〉 참조).

(3) 貯蓄方式別 貯蓄率

家計가 저축을 함에 있어서 ① 매달 일정 금액을 꼭 저축하는가, ② 매달 저축하나 액수

〈表 29〉 貯蓄方式別 平均貯蓄率

저축방식		총소득		1,200千원 이하				1,201~3,000				
		① 매달 일정금액을 꼭 저축	② 매달 저축하나 액수 미정	③ 여유 있을 때 저축	④ 미상	① 매달 일정금액을 꼭 저축	② 매달 저축하나 액수 미정	③ 여유 있을 때 저축	④ 미상			
지역	가 구 수											
가 회 동	가 구 수	1	2	2	—	5	—	2	1			
	저 축 율	36.76	50.80	51.79	—	36.31	—	8.89	17.47			
상 도 동	가 구 수	1	1	1	1	8	1	—	1			
	저 축 율	14.16	44.44	37.38	4.54	34.07	25.53	—	4.76			
신 립 동	가 구 수	1	—	1	—	7	1	2	5			
	저 축 율	5.45	—	58.82	—	33.25	6.46	20.70	26.80			
시 흥 동	가 구 수	2	1	—	2	1	2	3	—			
	저 축 율	23.64	50.00	—	10.26	3.37	44.33	23.52	—			
평 균	가 구 수	5	4	4	3	21	2	6	10			
	저 축 율	20.73	49.01	49.94	8.15	32.87	15.99	24.64	22.68			

  

저축방식		총소득		3,001 이상				전 가 구				총 평균
		① 매달 일정금액을 꼭 저축	② 매달 저축하나 액수 미정	③ 여유 있을 때 저축	④ 미상	① 매달 일정금액을 꼭 저축	② 매달 저축하나 액수 미정	③ 여유 있을 때 저축	④ 미상			
지역	가 구 수											
가 회 동	가 구 수	8	4	4	—	14	6	8	1			
	저 축 율	30.76	31.37	15.97	—	33.17	37.85	23.16	17.47			29
상 도 동	가 구 수	13	2	3	—	22	4	4	2			
	저 축 율	29.47	17.76	36.53	—	30.44	26.37	36.74	4.65			32
신 립 동	가 구 수	7	1	3	1	15	2	6	6			
	저 축 율	46.27	47.63	26.10	18.37	37.47	27.04	29.75	25.40			29
시 흥 동	가 구 수	—	—	—	—	3	1	2	5			
	저 축 율	—	—	—	—	16.88	50.00	44.33	18.21			11
평 균	가 구 수	28	7	10	1	54	13	20	14			
	저 축 율	34.04	29.80	25.28	18.37	32.35	33.59	29.97	19.30			30.23

〈表 30〉 貯蓄目標額有無別 平均貯蓄率

지역	총소득 목표액유무	1,200만원 이하			1,201~3,000			3,001 이상			전 가 구			총평균
		있다	없다	미상	있다	없다	미상	있다	없다	미상	있다	없다	미상	
가회동	가구수	4	1	—	5	3	—	10	5	1	19	9	1	29
	저축율	52.15	33.33	—	33.35	16.67	—	29.98	21.05	30.43	35.54	20.95	30.43	30.83
상도동	가구수	3	1	—	7	2	1	12	6	—	23	9	1	32
	저축율	31.99	4.54	—	30.62	41.87	4.76	29.57	28.89	—	30.23	29.07	4.76	29.11
신림동	가구수	1	1	—	8	6	1	9	3	—	18	10	1	29
	저축율	5.45	58.82	—	35.52	21.57	0.98	46.36	17.00	—	39.27	23.92	0.98	32.66
시흥동	가구수	2	2	1	2	2	2	—	—	—	4	4	3	11
	저축율	30.12	20.44	16.66	37.39	20.33	23.56	—	—	—	33.76	20.39	21.26	25.49
평균	가구수	10	5	1	22	13	4	31	14	1	63	32	6	101
	저축율	37.03	27.51	16.66	33.64	23.37	13.21	24.58	23.54	30.43	34.64	24.09	16.66	30.23

는 미정인지, ③ 여유 있을 때 수시 저축하는지 등의 구분에 따라 저축율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 〈表 29〉이다.

이에 의하면 수시 저축하는 가계보다는 매달 저축하는 가계의 저축율이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매달 일정금액을 꼭 저축하는 가계보다는 오히려 매달 저축하되 저축액 수가 미정인 쪽의 저축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 表의 지역별, 소득계층별 내용으로 보아 이 두가지 구분사이의 차이는 실제로 불규칙적이며 단지 수시 저축보다 매달 저축한다는 가계의 저축율이 높은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4) 貯蓄目標額有無別 貯蓄率

家計 저축에서 저축목표를 세워놓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저축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30〉에 의하면 근로자가구 전체에 대하여 저축목표가 있는 가구는 64가구에 평균저축율 34.64%이고 없는 가구는 32가구에 평균저축율 24.09%로서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별로나 소득계층별로나 대단히 안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5) 購買慣習區分別 貯蓄率

消費者들의 購買慣習이 어떠한에 따라서도 저축율은 다소의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반드시 必要한 物資, 計劃된 購買만을 하는 家計에 비하여 衝動에 의하거나 誘惑 또는 示威를 위한 購買를 하는 家計는 다른 사정이 同一 하다면 貯蓄을 많이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表 31〉 購買慣習區分別 平均貯蓄率

총소득		1,200千원 이하			1,201~3,000		
		① 꼭 있어야 되고 또 그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② 물건에 마음이 끌려서	③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서	① 꼭 있어야 되고 또 그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② 물건에 마음이 끌려서	③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서
지역	가구수						
가회동	저축율	5	—	—	8	—	—
		48.39	—	—	27.10	—	—
상도동	가구수	4	—	—	10	—	—
	저축율	25.13	—	—	30.28	—	—
신탄동	가구수	2	—	—	13	1	1
	저축율	32.13	—	—	27.84	25.64	27.11
시흥동	가구수	5	—	—	6	—	—
	저축율	23.56	—	—	27.09	—	—
평균	가구수	16	—	—	37	1	1
	저축율	32.78	—	—	28.22	25.64	27.11

총소득		3,001 이상				전 가 구				총 평균
		① 꼭 있어야 되고 또 그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② 물건에 마음이 끌려서	③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서	④ 미 상	① 꼭 있어야 되고 또 그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② 물건에 마음이 끌려서	③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서	④ 미 상	
지역	가구수									
가회동	저축율	14	1	—	1	27	1	—	1	
		25.24	66.67	—	15.38	30.08	66.67	—	15.38	
상도동	가구수	17	1	—	—	31	1	—	—	
	저축율	29.69	23.53	—	—	29.29	23.53	—	—	
신탄동	가구수	11	1	—	—	26	2	1	—	
	저축율	39.71	31.33	—	—	33.19	28.48	27.11	—	
시흥동	가구수	—	—	—	—	11	—	—	—	
	저축율	—	—	—	—	25.49	—	—	—	
평균	가구수	42	3	—	1	95	4 <sup>(2)</sup>	1	1	
	저축율	30.83	40.51	—	15.38	30.14	36.79 <sup>(1)</sup> (27.83)	27.11	15.38	

註: (1) ②물건에 마음이 끌려서 사는 가구는 4가구에 불과한데다 평균치는 가회동의 1가구의 저축율이 지나치게 異例의으로 높은 것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그 가구의 저축율을 가회동 전체의 저축율 30.83%로 잡고 다시 4가구 평균저축율을 구해본 결과 27.83%로 되었다.

〈表 31〉에 의하면 조사대상 전가구에 있어서 ① 꼭 있어야 되고 또 그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구매하는 가구는 95가구에, 그 저축율은 30.14%이고 ② 물건에 마음이 끌려서, ③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서, ④ 미 상 등의 구매관습 내지 動機에 관한 區分別 평균저축율은 각각 36.79% (4가구), 27.11% (1가구) 및 15.38% (1가구)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②의 4가구중 가회동 1가구의 저축율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例外的인 경우를 제거해 주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는 가회동의 평균저축율을 적용하여 전체 ②에 대한 평균저축율 27.83%를 얻었다. 만약 이것이 보다 의미있는 數値라고 한다면 구매관습별 저축율은 꼭 필요한 때 구매하는 가구의 저축율이 가장 높고 충동 또는 과시욕구에 의하여 구매를 할수록 저축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表 31〉 참조).

5. 貯蓄의 概念 및 目的

(1) 貯蓄으로 聯想되는 觀念의 種類別 平均貯蓄率

저축이라고 하였을 때 연상되는 觀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도 저축율은 달라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表 32〉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가구에서 ① 희망, 안전, 즐거움을 연상하는 가구는 60가구이고 그 평균저축율은 29.57%이며, ② 여유를 연상하는 가구는 9가구(31.40%)이고 ③ 절약, 고통, 손해 등 훨씬 소극적인 것 또는 고통스러운 것으로 관념하는 가구는 32가구에 평균저축율이 31.13%이다.

이 결과를 볼 때 저축을 하는 동기는 많은 경우에 주택마련이나 耐久消費財의 구입, 교육비축적 등과 같이 희망과 관련되는 사례(건수)가 많다고 보여지며, 그러면서도 또한 상당수의 가구에서는 그것이 힘겨운 절약,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도 생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여유를 연상한 가구들의 평균저축율이 가장 높은 것은 역시 저축은 소득에서 필요소비를 지출하고 난 나머지 즉 여유가 클수록 높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表 32〉 貯蓄聯想觀念種類別 平均貯蓄率

지역	총소득 저축연상	1,200만원 이하			1,201~3,000			3,001이상			전 가 구			총평균
		①희망 안 전 즐 거 움	②여유	③절약 고 통 손 해	①희망 안 전 즐 거 움	②여유	③절약 고 통 손 해	①희망 안 전 즐 거 움	②여유	③절약 고 통 손 해	①희망 안 전 즐 거 움	②여유	③절약 고 통 손 해	
가회동	가구수	4	1	—	5	1	2	9	—	7	18	2	9	29
	저축율	48.69	47.16	—	36.90	6.36	12.96	25.34	—	29.63	33.74	26.76	25.93	30.83
상도동	가구수	2	—	2	7	1	2	9	3	6	18	4	10	32
	저축율	40.39	—	9.35	21.72	43.83	53.46	21.43	35.73	38.03	23.71	35.75	35.38	29.11
신림동	가구수	1	1	—	6	1	8	8	1	3	15	3	11	29
	저축율	58.82	5.45	—	27.48	55.97	24.22	38.65	16.66	47.44	35.53	26.02	30.55	32.66
시흥동	가구수	5	—	—	4	—	2	—	—	—	9	—	2	11
	저축율	23.56	—	—	22.37	—	36.55	—	—	—	23.03	—	36.55	25.49
평 균	가구수	12	2	2	23	3	14	26	4	16	60	9	32	101
	저축율	37.76	26.30	9.35	26.86	35.38	28.55	28.08	30.96	36.12	29.57	31.40	31.13	30.23

<表 33> 貯蓄의 第1次目的別 平均貯蓄率

지역		1, 200千원 이하														1, 201~3, 000													
		총소득							미상							총소득							미상						
지역	저축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절벽이 나기 전에 자기 수입에 비하여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결혼을 함에 따라 자기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결혼을 함에 따라 자기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생활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생활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가회동	가구수	3	2	—	—	—	—	—	—	—	—	—	—	—	2	2	—	—	—	—	—	—	—	—	—	—	—	—	
가회동	저축률	52.67	41.96	—	—	—	—	—	—	—	—	—	—	—	46.81	11.51	—	—	—	—	—	—	—	—	—	—	—	—	
상도동	가구수	1	1	—	—	—	—	—	—	—	—	—	—	—	1	3	—	—	—	—	—	—	—	—	—	—	—	—	
상도동	저축률	14.16	44.44	—	—	—	—	—	—	—	—	—	—	—	23.40	52.03	—	—	—	—	—	—	—	—	—	—	—	—	
신탄동	가구수	2	—	—	—	—	—	—	—	—	—	—	—	—	7	4	—	—	—	—	—	—	—	—	—	—	—	—	
신탄동	저축률	32.13	—	—	—	—	—	—	—	—	—	—	—	—	24.05	33.45	—	—	—	—	—	—	—	—	—	—	—	—	
시흥동	가구수	—	2	—	—	—	—	—	—	—	—	—	—	—	1	2	—	—	—	—	—	—	—	—	—	—	—	—	
시흥동	저축률	—	20.44	—	—	—	—	—	—	—	—	—	—	—	1.68	24.41	—	—	—	—	—	—	—	—	—	—	—	—	
평안	가구수	6	5	—	—	—	—	—	—	—	—	—	—	—	13	11	—	—	—	—	—	—	—	—	—	—	—	—	
평안	저축률	39.41	33.85	—	—	—	—	—	—	—	—	—	—	—	25.68	32.88	—	—	—	—	—	—	—	—	—	—	—	—	
총소독		3,001 이상							전							가							구						
지역	저축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절벽이 나기 전에 자기 수입에 비하여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결혼을 함에 따라 자기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결혼을 함에 따라 자기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생활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생활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가회동	가구수	3	9	—	—	—	—	—	—	—	—	—	—	—	8	13	—	—	—	—	—	—	—	—	—	—	—	—	
가회동	저축률	27.80	24.50	—	—	—	—	—	—	—	—	—	—	—	41.88	25.18	—	—	—	—	—	—	—	—	—	—	—	—	
상도동	가구수	10	3	—	—	—	—	—	—	—	—	—	—	—	14	7	—	—	—	—	—	—	—	—	—	—	—	—	
상도동	저축률	24.84	40.21	—	—	—	—	—	—	—	—	—	—	—	23.77	45.88	—	—	—	—	—	—	—	—	—	—	—	—	
신탄동	가구수	6	3	—	—	—	—	—	—	—	—	—	—	—	15	7	—	—	—	—	—	—	—	—	—	—	—	—	
신탄동	저축률	38.10	50.21	—	—	—	—	—	—	—	—	—	—	—	30.75	40.63	—	—	—	—	—	—	—	—	—	—	—	—	
시흥동	가구수	—	—	—	—	—	—	—	—	—	—	—	—	—	1	4	—	—	—	—	—	—	—	—	—	—	—	—	
시흥동	저축률	—	—	—	—	—	—	—	—	—	—	—	—	—	1.68	22.42	—	—	—	—	—	—	—	—	—	—	—	—	
평안	가구수	19	15	—	—	—	—	—	—	—	—	—	—	—	38	31	—	—	—	—	—	—	—	—	—	—	—	—	
평안	저축률	29.49	32.78	—	—	—	—	—	—	—	—	—	—	—	29.75	32.99	—	—	—	—	—	—	—	—	—	—	—	—	
총소독		3,001 이상							전							가							구						
지역		3,001 이상							전							가							구						
지역		3,001 이상							전							가							구						
지역		3,001 이상							전							가							구						

## (2) 貯蓄의 第1次目的別 平均貯蓄率

저축을 하는 목적과 動機는 대체로 複合的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령 두가지 목적이 있다고 할 때에도 어느 것이 첫째 목적이라고 들기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저축을 하는 第1次的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9가지의 목적을 例示한 뒤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뽑고 그것들을 중요한 것부터 번호를 매기도록 요구하였다. <表 33>은 그 가운데서 첫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뽑힌 목적에 따라 가구수와 그들의 평균저축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表에 나타나는 특징중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① 질병이나 갑자기 필요한 자금을 대비하기 위한, 즉 豫備의 動機에 의한 가구수가 제일 많고(전체 38가구, 29.75%), 다음으로는 ② 자녀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로서 31가구(32.99%)이다. 그 다음에는 ⑨부동산 구입, 가옥 신축을 위하여 (11가구, 36.60%), ③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4가구, 20.46%), ④앞으로의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4가구, 34.28%) 등으로 되어 있다.

두번째의 특징은 목적 ①, ②에 대부분의 가구가 집중되어 있고 또한 ①에 속하는 가구가 ②를 선택한 가구보다 많은 것이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보아도 규칙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칙성은 지역별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가회동과 시흥동에서는 ②교육비마련을 第1次 목적으로 선택한 가구가 ①질병, 긴급자금수요에 대비를 선택한 가구보다 많다.

세번째의 특징은 ⑨부동산구입, 가옥신축, ④영업자금 마련 및 ③교육비 마련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적을 第1次 목적으로 선택한 가구들의 평균저축율이 그밖의 목적을 선택한 가구들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그와 같은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가계의 소득수준이나 자산상태가 다른 가계보다 나은 데서 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측된다.

## 6. 金融制度의 認識

## (1) 預金勸誘의 받은 적 與否別 平均貯蓄率

金融機關에 대한 저축은 지금까지와 같은 物價上昇率, 私金利와 金融機關金利와의 隔差라는 條件下에서는 預金の 勸誘가 상당한 作用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사정을 統計로서 확인해 보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表 34>이다.

이 表에 의하면 근로자가구 전체에 대하여 볼 때 예금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 가구는 없는 가구보다 약 2배 정도로 많고 그들의 평균저축율이 권유를 받은 일이 없는 가구의 그것보다 높다. 이것은 비교적 고무적인 현상이며 앞으로도 가계의 저축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가

〈表 34〉 預金勸誘의 받은 적 與否別 平均貯蓄率

지역	총소득 예금권유여부	1,200千원 이하		1,201~3,000			3,001 이상			전 가 구			총평균
		받은적 있었다	받은적 없었다	받은적 있었다	받은적 없었다	미 상	받은적 있었다	받은적 없었다	미 상	받은적 있었다	받은적 없었다	미 상	
가 회 동	가구수	1	4	6	1	1	7	5	4	14	10	5	29
	저축율	36.76	51.29	26.48	42.00	15.90	33.09	27.85	16.14	30.52	36.84	16.09	30.83
상 도 동	가구수	2	2	3	6	1	14	4	—	19	12	1	32
	저축율	24.49	25.77	19.38	33.48	43.83	32.85	17.06	—	29.85	26.72	43.83	29.11
신 립 동	가구수	1	1	12	3	—	10	1	2	22	5	2	29
	저축율	58.82	5.45	27.99	26.24	—	38.72	84.70	17.51	33.78	33.77	17.51	32.66
시 흥 동	가구수	2	3	3	3	—	—	—	—	5	6	—	11
	저축율	43.51	10.25	40.08	14.11	—	—	—	—	41.45	12.18	—	25.49
평 균	가구수	6	10	24	8	2	30	10	6	60	33	8	101
	저축율	38.59	29.29	28.05	45.49	29.86	34.67	29.22	16.60	32.41	28.76	19.91	30.23

지 방법에 의한 예금권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금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 것과 높은 저축율과의 正의 相關關係는 지역별, 소득계층별로도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表 34〉 참조).

(2) 銀行과의 距離階層別 平均貯蓄率

다른 사정이 同一하다면 은행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도 은행에 대한 저축에 영향을 미칠 것은 自明하다. 이것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表 35〉이다.

表에 의하면 우선 도보 10분 이내에 은행이 있는 가구수가 전체 101가구중 71가구나 되며 나머지도 거의 대부분이 도보 30분 범위 내에 있다. 그리고 예상한대로 은행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저축율이 높게 나오고 있으며 그와 같은 관계는 지역별, 소득계층별로 보아도 거의 예외없이 잘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大都市에서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상당한 정도로 지역적으로 擴散되어 있지만 中小都市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따라서 물론 單位支店別로의 探索性이 前提가 되어야 되겠지만 금융조직망을 擴大하는 것이 명백한 家計貯蓄增大의 길임을 이 자료로서 알 수 있다고 하겠다.

(3) 銀行預金金利評價別 平均貯蓄率

은행의 預金金利를 알고 있는가 혹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評價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저축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表 36〉에 의하면 예금금리에 대하여 모른다고 응답한 가구는 13가구이며 87가구가 아는

〈表 35〉 銀行과의 距離階層別 平均貯蓄率

지역	종소부	1,200千원 이하										3,001 이상										총평균		
		1,200千원 이하					1,201~3,000					3,001 이상					3,001 이상							
		정다	무다	정다	무다	정다	무다	정다	무다	정다	무다	정다	무다	정다	무다	정다	무다	정다	무다	정다	무다			
가회동	가주저	4	1	1	7	1	30.06	6.36	—	—	12	28.46	26.19	—	1	15.38	32.92	24.33	—	5	—	15.38	29	30.83
상도동	가주저	2	2	2	10	—	30.28	—	—	18	29.35	—	—	—	—	—	29.10	29.30	—	2	—	—	32	29.11
신림동	가주저	2	—	—	10	4	25.83	33.22	23.43	1	54.93	31.90	21.98	3	—	—	35.13	32.56	22.34	4	—	—	29	32.66
시흥동	가주저	—	2	2	1	3	71.42	28.70	2.52	2	—	—	—	—	—	—	71.42	30.55	11.48	4	—	—	11	25.49
평평	가주저	8	5	2	28	8	30.11	28.17	9.49	3	35	32.70	29.45	21.98	1	15.38	32.38	26.97	16.91	8	—	12.81	101	30.23

〈表 36〉 銀行預金金利評價別 平均貯蓄率

지역	종소부	1,200千원 이하										3,001 이상										총평균		
		1,200千원 이하					1,201~3,000					3,001 이상					3,001 이상							
		정다	무다	정다	무다	정다	무다	정다	무다	정다	무다	정다	무다	정다	무다	정다	무다	정다	무다	정다	무다		정다	무다
가회동	가주저	4	1	1	6	1	33.29	—	15.90	26.86	23.95	30.43	48.22	15.38	3	18.28	32.22	30.43	37.27	4	—	15.38	29	30.83
상도동	가주저	1	1	2	7	—	29.30	35.26	23.61	1	67.01	26.87	30.30	—	—	—	26.18	28.41	—	3	—	—	32	29.11
신림동	가주저	2	—	—	9	1	28.54	25.64	55.97	29.08	43.98	—	—	—	—	—	24.06	35.42	25.64	1	—	—	29	32.66
시흥동	가주저	2	2	2	3	—	14.11	—	40.08	—	—	—	—	—	—	10.25	12.57	—	5	—	—	11	25.49	
평평	가주저	2	5	7	25	1	26.57	25.64	43.18	27.67	31.78	30.43	48.22	15.38	1	23.35	30.41	28.03	41.38	2	—	13	101	30.23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예금금리에 대한 평가별로 보면 금리가 너무 낮다고 한 가구가 65가구, 적정하다고한 가구가 20가구, 그리고 너무 높다고 한 가구가 2가구로 되어 있다.

가구들의 평가는 대체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며 다만 각 평가가구별 평균저축율의 움직임은 얼른 이해하기 어렵다. 즉 예금금리가 너무 낮다고 한 가구의 평균저축율이 적정하다고 한 가구의 그것보다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데도 실제로는 전가구평균으로 전자는 30.41%이고 후자는 23.35%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행예금금리에 대한 평가별로 볼 때 가구수의 분포상태는 예상된 대로이지만 각 평균저축율의 차이는 예상했던 바와는 차이가 심한데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저축에 관한 정보가 따로 없기 때문에 확실히는 말할 수 없지만 여기서 사용된 저축이 금융기관에의 저축과 그밖의 모든 방법의 저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表 36〉 참조).

(4) 私債金利知識與否別 平均貯蓄率

私債金利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金融機關에의 預金을 생각할 때 대부분이 私債市場에서 받을 金利가 하나의 중요한 고려요인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예상되는 바로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사채금리의 수준도 알고 있고, 또한 그러한 가구일 수록 전반적으로 저축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이다.

〈表 37〉에 의하면 未詳을 제외한 99가구중에서 79가구가 사채금리를 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20가구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모른다고 한 가구도 정확한 사채금리를

〈表 37〉 私債金利知識與否別 平均貯蓄率

지역	총소득 인식여부	1,200원 이하									1,201~3,000			3,001 이상			전 가 구	총 평 균			
		안다			모른다			미상			안다			모른다					미상		
		안다	모른다	미상	안다	모른다	미상	안다	모른다	미상	안다	모른다	미상	안다	모른다	미상					
가 회 동	가구수	2	2	1	8	—	7	8	1	17	10	2				29					
	저축율	58.70	43.89	36.76	27.10	—	31.05	25.35	15.38	32.44	29.05	26.07				30.83					
상 도 동	가구수	3	1	—	8	2	15	3	—	26	6	—				32					
	저축율	28.78	14.16	—	32.08	23.07	28.25	34.85	—	29.49	27.47	—				29.11					
신 립 동	가구수	2	—	—	13	2	11	1	—	26	3	—				29					
	저축율	32.13	—	—	28.36	22.96	40.89	18.37	—	33.95	21.43	—				32.66					
시 흥 동	가구수	6	—	—	40	1	—	—	—	10	1	—				11					
	저축율	22.50	—	—	35.49	3.37	—	—	—	27.70	3.37	—				25.49					
평 균	가구수	13	3	1	33	5	33	12	1	79	20	2				101					
	저축율	31.00	33.98	36.76	29.82	19.09	33.05	27.14	15.38	31.37	26.15	26.07				30.23					

모른다는 것이지 거의 대부분이 사채금리가 은행예금금리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이 사채금리에 대한 지식여부에 따르는 가구들의 평균저축율을 보면 알고 있는 가구들은 31.37%이고 모르는 가구들은 26.15%로 일단 기대했던 바와 같이 전자가 높다. 이와 같이 사채금리에 대하여 아는 가구일수록 저축율이 높은 것은 지역별로나 소득계층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表 37〉 참조).

(5) 預金利子所得의 稅制上의 惠澤에 대한 知識與否別 平均貯蓄率

은행예금의 利子所得에 대한 稅利上의 惠澤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貯蓄誘因은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저축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表 38〉에 의하면 앞서 〈表 36〉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축율은 예상된 방향과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세제상의 혜택을 아는 가구가 49가구인데 이들의 평균저축율 28.60%은이고 모른다는 가구는 51가구인데 이들의 그것은 32.08%이다.

이러한 기대 밖의 결과는 앞서 〈表 36〉에 대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전체저축금액 중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의 저축분의 비중이 대단히 낮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면 세제상의 혜택을 알더라도 그것이 追加的인 貯蓄誘因으로 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 두가지 해석 중에서는 아마도 전자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6) 政府의 物價安定政策에 대한 信賴와 平均貯蓄率

가계의 저축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부의 物價安定政策에 대하여 얼마만큼 그것을 信賴하

〈表 38〉 預金利子所得의 稅制上惠澤知識與否別 平均貯蓄率

지역	지식여부	총소득		1,200千원 이하		1,201~3,000		3,001 이상			전 가 구			총 평 균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미 상	안다	모른다	미 상			
가 회 동	가 구 수	1	4	5	3	6	9	1	12	16	1	29		
	저 축 율	54.45	46.87	15.19	46.95	27.48	28.36	15.38	24.60	36.47	15.38	30.83		
상 도 동	가 구 수	2	2	5	5	9	9	—	16	16	—	32		
	저 축 율	20.96	29.30	29.15	31.42	26.58	32.12	—	26.68	31.54	—	29.11		
신 립 동	가 구 수	—	2	8	7	10	2	—	18	11	—	29		
	저 축 율	—	32.13	28.08	27.14	36.52	51.51	—	32.77	32.46	—	32.66		
시 흥 동	가 구 수	1	4	2	4	—	—	—	3	8	—	11		
	저 축 율	16.66	25.28	36.55	22.37	—	—	—	29.92	23.82	—	25.49		
평 균	가 구 수	4	12	20	19	25	20	1	49	51	1	101		
	저 축 율	28.25	34.29	25.97	30.39	30.77	32.36	15.38	28.60	32.08	15.38	30.23		



는가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사정이 同一하다면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을 신뢰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實物貯蓄보다 制度金融貯蓄을 더 하게 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換物心理 등의 作用으로 制度金融貯蓄은 기피될 것이다.

<表 39>에 의하면 근로자 전가구에 대하여 볼 때 ① 信賴하고 있는 가구(注力할 것으로 믿는 가구)는 71가구이고, ② 그 반대로 믿고 있는 가구는 8가구, ③모르겠다는 가구가 22가구이다. 이와 같이 많은 가구가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평균저축율은 30.45%로서 신뢰하지 않는 가구의 43.27%보다 낮다. 그런데 여기서 모르겠다는 가구는 사실은 깊은 신뢰감이 없다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을 것같기도 하다. 만약 이들을 모두 신뢰하지 않는 가구로 보고 ②와 ③을 합쳐 加重平均한 저축율을 계산해 보면 29.70%로 되어 신뢰하는 가구보다는 약간 낮게 된다.

이 加重平均貯蓄率을 그대로 써도 無妨하리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굳이 왜 ①과 ②에서 보듯 신뢰하는 가구의 저축율이 그 반대의 가구보다 낮은가를 다시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저축은 모든 형태의 저축의 합계이므로 가령 실물저축이 상당한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면 오히려 <表 39>에 나타난 결과가 제대로 기대될 수 있는 것과 합치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실물저축의 중요성이 큰 최근의 저축동향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충분한 여지는 있

<表 39> 物價安定政策信賴與否別 平均貯蓄率

총소득		1,200千원 이하			1,201~3,000			3,001 이상			전 가 구			총평균
		① 주력할 것이다	② 주력하지 않을 것이다	③ 모르겠다	① 주력할 것이다	② 주력하지 않을 것이다	③ 모르겠다	① 주력할 것이다	② 주력하지 않을 것이다	③ 모르겠다	① 주력할 것이다	② 주력하지 않을 것이다	③ 모르겠다	
지역	가구수	4	1	—	5	—	3	11	2	3	20	3	6	29
	저축율	48.69	47.16	—	38.68	—	7.79	25.97	35.88	11.34	35.89	39.64	9.56	30.83
상도동	가구수	3	—	1	5	—	5	17	—	1	25	—	7	32
	저축율	18.69	—	44.44	25.47	—	35.09	29.33	—	29.62	37.28	—	35.65	29.11
신림동	가구수	2	—	—	10	1	4	11	—	1	23	1	5	29
	저축율	32.13	—	—	24.07	50.16	30.93	39.53	—	33.33	32.17	50.16	31.41	32.66
시흥동	가구수	2	1	1	1	3	3	—	—	—	3	4	4	11
	저축율	10.26	10.25	37.03	1.68	55.62	14.68	—	—	—	7.40	44.28	20.26	25.49
평 균	가구수	11	2	2	21	4	15	39	2	5	71	8	22	101
	저축율	30.51	28.70	40.73	26.82	54.25	24.44	37.15	45.88	19.39	30.45	43.27	24.77	30.23

註：設問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주력하리라고 보는가?”

① 주력할 것이다( ) ② 주력하지 않을 것이다( ) ③ 모르겠다( )

〈表 40〉 金融機關公信用評價別 平均貯蓄率

지역	총소득 공신력여부	1,200千원 이하			1,201~3,000			3,001 이상			전 가 구			총평균
		믿고 있다	불안 하다	관심 없다	믿고 있다	불안 하다	관심 없다	믿고 있다	불안 하다	관심 없다	믿고 있다	불안 하다	관심 없다	
가회동	가구수	5	—	—	7	—	1	14	1	1	26	1	2	29
	저축율	48.39	—	—	30.06	—	6.36	25.98	29.77	42.00	31.39	29.77	24.18	30.83
상도동	가구수	3	—	1	10	—	—	18	—	—	31	—	1	32
	저축율	28.78	—	14.16	30.28	—	—	29.35	—	—	29.59	—	14.16	29.11
신림동	가구수	2	—	—	15	—	—	12	—	—	29	—	—	29
	저축율	32.13	—	—	27.64	—	—	42.56	—	—	32.66	—	—	32.66
시흥동	가구수	4	—	1	6	—	—	—	—	—	10	—	1	11
	저축율	25.28	—	16.66	27.09	—	—	—	—	—	26.37	—	16.66	25.49
평 균	가구수	14	—	2	38	—	1	44	1	1	96	1	4	101
	저축율	35.26	—	15.41	28.69	—	6.36	30.91	29.77	42.00	30.67	29.77	19.79	30.23

다고 생각된다.

(7) 金融機關에 대한 公信用評價別 平均貯蓄率

이밖에도 금융기관의 公信用에 대하여 어떻게 評價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評價가 다름에 따라 저축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表 40〉에 의하면 거의 전가구(96가구)가 公信用을 믿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不安하다(1가구)거나, 관심없다(4가구)는 가구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이 評價別 貯蓄率은 믿고 있는 가구의 평균이 30.67%이고 나머지 가구는 그보다 낮다. 결국 이 表의 결과에 의한다면 금융기관의 公信用 자체는 그다지 저축율의 차이를 직접 설명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볼 때 역시 所得 및 資産 등이 가장 큰 저축결정요인이며 그 밖에 消費의 규모를 결정해 주는 家族數나 그 構成의 차이, 消費 내지 購買에 있어서의 慣習 또는 方法 등이 副次的인 決定要因으로 작용하고 있고 金融制度에 대한 認識의 차이 등은 상대적으로 小幅的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V. 政策的 示唆

지금까지 勤勞者家計의 貯蓄行態에 대하여 여러가지 側面에서 分析을 하여 보았고 그 결과 몇 가지 새롭고 흥미로운 結果도 발견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結果를 다시 극히 간단히

約要하면서 그것들에서 어떠한 貯蓄增大를 위한 政策的인 示唆를 얻을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 1. 貯蓄의 現狀에서의 政策的 示唆

첫째, 저축을 하지 않는 가구중에서 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로서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는 가구가 75%에 이르고 있는 점으로부터 消費節約을 통한 저축증대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저축의 목적을 보면 豫備의인 動機 外에 子女教育費, 不動產購入 등이 그 큰 項目이므로 教育費 및 家屋 기타 耐久消費財의 購入用途에 편리한 형태의 金融資產, 기타의 貯蓄方法을 提供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째, 每月 시기적으로나 金額上으로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가구가 총저축가구 중에서 75.5%인 집에 비추어 一定時期, 또는 一定金額을 納付하는 貯蓄方式에 대한 효율성을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2. 貯蓄率의 決定要因에서의 政策的 示唆

첫째, 이웃소득과의 비교에서 스스로의 所得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저축율이 낮고 그 反對의 家口에서는 높았던 점을 생각할 때 이는 소위 相對所得假說에서 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부터 誇示消費現象을 抑制하고 저축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高所得層의 無節制한 浪費, 虛勢消費風潮를 강력히 沮止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有所得家口員數가 많을수록 그러한 家口의 저축율이 낮은 것이 發見되었는데 이것이 示唆하는 바는 租稅 등의 賦課에 있어서 누구든지 所得을 얻고 있는 사람의 數에 比較적 比例하는 租稅制度는 衡平을 잃기 쉽고 家計單位로 負擔을 지게해야 하는 것이 더욱 妥當하다는 含意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세째, 家計別 行態를 볼 때 家計豫算을 作成하는 家計일수록 저축율이 높고, 所得을 支出할 때 저축부터 먼저 결정하는 家計일수록 또한 저축율이 높다는 사실로부터 家計의 豫算作成과 저축우선결정을 誘導하는 思想과 政策을 普及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네째, 그뿐 아니라 每月 定期的으로 저축을 하는 家計일수록, 貯蓄目標를 設定하고 있는 家計일수록, 꼭 필요한 물자만을 購買하는 家計일수록 平均저축율이 높은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저축증대정책으로서도 每月 정기적인 저축, 저축 목표의 設定, 꼭 필요한 물자의 購買慣習昂揚을 적극 誘導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預金勸誘를 받은 일이 있는 家計일수록, 그리고 金融機關과의 거리가 가까울

수축 저축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해온 정책과 같이 가급적 금융조적망을擴大하고 또한 적극적인 예금권유를 계속하는 것이 효과적인 저축증대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여섯째, 은행예금금리의 評價에서는 현재의 金利가 적정선보다 낮다고 評價한 가계의 저축율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示唆는 은행금리가 적극적으로 저축증대의 要因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될 것 같다.

일곱째, 政府가 物價安定政策에 대하여 注力할 것이라고 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家計일수록 저축율이 낮고 그 反對일수록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注力할 것이라고는 믿지만 成功할 것이냐에 회의적이라고 믿을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한 회의 때문에 不動産買入 등의 방법으로 所得을 支出하고 전형적인 方式으로 저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사결과로 나타난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物價의 不安定을 각소득계층의 가계에서 모두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따라서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物價의 昂騰을 막고 또한 그러한 豫想(expectation)을 除去시켜주도록 政策的인 努力이 集中되어야 할 것이다.